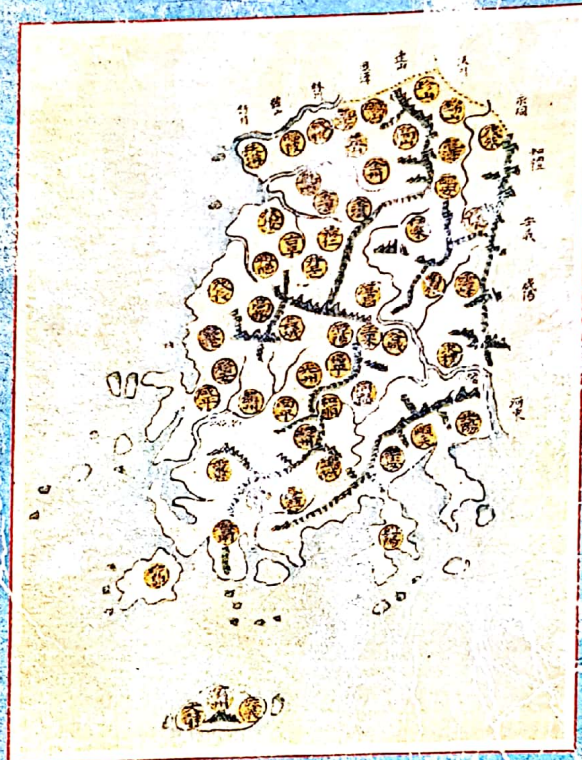


전라기행



전북대신문사
전북대신문사

발행인 : 장 명 수
편집인 : 이 홍 재
주 간 : 김 진 기
편집장 : 조 경 숙

기 획 : 정 상 권
자료정리 : 송 양 희

인 쇄 : 1996년 1월15일
발 행 : 1996년 1월31일
발행처 : 전북대학교 신문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70-3536~8

편집 및 인쇄 : 맥기획(0652-85-6290~1)

노래의 고향을 찾아서 11

- 12/ 완주군 봉동읍 · 삼례읍 편— 민요는 삶의 기쁨이나 허무함의 직접적인 표출방식
- 14/ 완주군 구이면 편— 다양하고 실감난 가사 오롯이 보존
- 17/ 익산군 금마면 · 삼기면 편— 만물산이 노래는 혼자사는 외로움 한탄하는 내용
- 19/ 익산군 여산면 편— 일하는 도구들에 대한 친근감 불러일으켜
- 22/ 옥구군 고군산열도 편— 기독교화로 사라져가는 어부가와 풍어제놀이
- 25/ 옥구군 나포면 편— 성주 · 새 · 꼬댁각시 통한 민요 잔존
- 27/ 진안군 진안면 편— '농부가' 없이 모심는 논에서는 쓸쓸함만이
- 30/ 무주군 안성면 편— 우리의 먼 기억과 역사 간직한 민요
- 33/ 장수군 장수읍 편— 처음듣는 길쌈노래 인상적
- 36/ 남원군 보절면 편— 출던가 더웁던가 내품에 들소...
- 38/ 남원군 산동면 편— 가난과 희망이 묻어있는 노래들
- 41/ 임실군 지사면 편— "우리 둘이 보자허구 달거울을 사왔더니..."
- 44/ 임실군 삼계면 편— 섬세한 굴곡, 묘한 맛의 '말천방들 노래'
- 48/ 고창군 심원면 편— "원수놈의 백정놈들은 나만 잡자고 공논을 헐다"
- 52/ 고령군 부안면 편— "달떠오네 달떠오네 갑오방에 달떠오네"
- 56/ 순창군 팔덕면 편— "...자네 뜻을 내 몰랐네 하이고 답답 설운지고"
- 60/ 순창군 복흥면 편— "줄만 골라도 사리랑 동계 덩실이 노는 사리랑"
- 63/ 정읍군 칠보면 편— "저그 가는 저 처녀 눈매 걸눈만 감고 속눈은 떴네"
- 67/ 부안군 위도면 편— 신앙과 놀이와 노래가 어울린 곳
- 71/ 부안군 상서면 편— "물 질러 간다 강짜말고 살강말이 샘이나 파주지"
- 74/ 김제군 만경면 편— 김제 만경 평야지역에 자생하는 들 노래들
- 78/ 민요발굴 취재에서 얻은 관견(管見)— 개인화된 문화성향 공통문화로 조절돼야

277377 1996. 2. 16

민간신앙의 맥을 찾아서 83

- 84/ 시리즈를 시작하며— 무속·점복·풍수도참은 우리의 고유정신
- 88/ 순창군 팔덕면「당산(堂山)제」— 마을의 평안과 풍년 기원
- 93/ 고창군 흥덕면「기자암(祗子岩)」— 민간에서 아직도 신성시하는 암석신앙
- 96/ 김제군 월촌면「시제」— 흘기창(忽記唱)에 따라 묘제 진행
- 99/ 「도깨비불」·「혼불」— 인간과 차원 달리하는 신의 세계
- 103/ 「혼맞이 굿」— 어린 자식의 혼이 어머니 몸에 접신
- 107/ 「안택(安宅)굿」— 4대째 내려온 선유도 무당굿의 마지막 계승
- 114/ 부적— 자신의 신념 굳게 하기위한 대상으로 이해되어야
- 117/ 황단(皇祖)— 충·효·열 갖춘 전통 유교 집안
- 120/ 사주— 음양오행과 간지(干支)에 근거
- 127/ 관상— 관상. 미신이라 규정 못해

판따라 소리따라 131

- 132/ 판소리를 시작하며— 판소리, 올바른 전승·연구 시급
- 135/ 권삼득 편— 이 고장 출신 판소리 명창의 시조
- 139/ 송흥록 편— 가왕(歌王)칭호 받는 동편제 우두머리
- 143/ 송만갑 편— 법통 외면, 「송만갑제」 만들어
- 146/ 홍웅표 편— 「협률사」공연 보고 판소리길 떠나
- 150/ 이일주 편— 국악의 양악화 추세에 반발하는 여성명창
- 153/ 북과 고수— 창자의 더듬 파악, 고수의 재치 필요
- 156/ 남원명창대회— 조상현, 성창순 등 많은 명창 배출
- 159/ 전주대사습놀이— 민족 예술 맥 잇는 최고의 국악 등용문
- 162/ 강도근 편— 「흥보가」완창 노익장 과시
- 165/ 성점옥 편— 죽는 날까지 제자 가르칠 생각
- 168/ 판소리의 특징— 판소리 연구의 종합성 아쉬워
- 171/ 판소리의 사설— 판소리 어려요소 중 가장 큰 비중
- 174/ 판소리 이론— 동·서편제 유파명칭, 지역 개념은 잘못
- 178/ 시리즈를 마치고— 판소리는 모두의 공감놀이 예술

가람에 스민 숨결따라 183

- 184/ 시리즈를 시작하며— 하천과 더불어 부대껴온 우리 역사-이 고장에 서려있는 애길 찾아
188/ 김제군 진봉면 길곶— 산 적고 들 많은 야지(野地)의 문화-담보나 보증없이는 쌀 한짝 얻기 힘든 생활
191/ 옥구군 대야면 신촌— 바닷물 막고 식수 얻기위한 사투-간척사업 이후 새로 생겨났던 '신촌'
195/ 옥구군 대야면 탑동— 우리것을 지키려는 억센 노력들- '수탈의 길' 이 이젠 '번영의 도로' 로
198/ 익산군 금마면 미륵상— 살아 숨쉬고 있는 '위대한 백제훈'-80년부터서야 본격적인 발굴조사 착수
204/ 전주시 풍남문— '대쪽같은 죽대' 간직한 풍패지향-역사의 명암과 희비 엮갈린 전주천
207/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만경강 뿌리 더듬는 마지막 발걸음-저게 바로 우리네 현주소가 아닌가
210/ 동진강으로 가며— '개땅쇠'의 참된 의미는 '개척자'-그 벽골제, 그 정읍사, 그 전봉준을 찾아
213/ 임실군 운암면— 수물민들의 역사와 애환 가득-출렁이는 황금물결에 결실의 꿈 가득
216/ 정읍군 칠보면— 호남가단의 원류가 된 '상춘곡'-해지는 동진강 건너 유서깊은 무성서원
219/ 정읍군 이평면— 황금물결속에 일렁이는 함성들 - 분노로 치달았던 고부길엔 아스팔트만 뿔어
224/ 김제군 부량면— 이 고장의 가장 귀한 역사유물 벽골제-과연 관개용 저수지였는지엔 의문
227/ 김제군 김제읍— 한줄기 물은 백갈래로 퍼져 나가고-개땅쇠 한과 설움속에 숨쉬어 온 '동진농조'
230/ 부안군 계화도— 우리네 저력은 바로 그 '무던함'-강은 삶의 현장이며 싸움터라는 교훈 얻어
235/ 취재단상·사라지는 전북역사— 상처투성이인 이 땅의 역사-이 씩씩함을 언제쯤 떨쳐버릴지...

문학으로 비춰본 이땅의 역사 239

- 240/ 글을 시작하며— 전라도 삶의 한가운데는 어디인가
- 242/ 백제여인과 정읍사— 지쳐도 절망않는 '사랑의 강인함'
- 248/ 호남가단의 원류 '상춘곡'— 호남가단의 줄기는 곧 한국 가단의 줄기
- 252/ 우리 어사또와 춘향이 I— 역사흐름의 향기 머금은 남원
- 255/ 우리 어사또와 춘향이 II— 신분·계급 초월한 과감하고 강렬한 사랑
- 262/ 동학의 꺼지지 않는 들불로 I— 녹두꽃이여 들불이여.(시편)
- 266/ 동학의 꺼지지 않는 들불로 II—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소설편)
- 269/ 동학의 꺼지지 않는 들불로 III— 민중 생존권의 절절한 발로-동학혁명, 그 현장을 찾아
- 277/ 민중메시아, 미륵의 터전 모악산 I— "평지돌출의 산형, 후덕한 품이여"
- 280/ 민중메시아 미륵의 터전 모악산 II— 민중으로부터 만국할계된다는 생명사상
- 284/ 민중의 어머니 지리산, ... I— 大地的인 모신성, 가슴살의 산
- 288/ 민중의 어머니 지리산, ... II— 날카로움과 엄한 매서움, 드넓은 포근함을 함께 지닌 산
- 294/ 민중의 어머니 지리산, ... III— 산에 발을 들이며 끊이지 않는 전설
- 301/ 민중의 어머니 지리산, ... IV— 완성된 모성이 아닌 빈혈않는 어머니의 산
- 307/ 민중의 어머니 지리산, ... V— 지리산의 날망짐과 섬진강의 도도함이 어우러진 곳
- 314/ 민중의 어머니 지리산, ... VI— 등 돌려도 '완전대립' 없는 우리
- 318/ 민중의 어머니 지리산, ... VII— 다시 찾은 지리산 이야기 '토지'
- 322/ 민중의 어머니 지리산, ... VIII— 온통 통곡소리와 피내음 밖에는...
- 329/ 마지막회 전라도 선언— 한을 다스리는 튼실한 문화풍토 '전라도'

역풍의 세월 되살아오는 사람들 333

- 334/ 시작하는 글— 삶을 이끈 저항의 맥들
- 338/ 낙향(落鄕)에 서린 불사이군의 충정— 청절의 이미지 담긴 '귀래정'
- 342/ 죽도의 장군 정여립(1)— 반역아닌 나라위한 충절
- 346/ 죽도의 장군 정여립(2)— 죽음당한 여립의 한품은 천반산
- 350/ 당쟁속의 성중엄— 죽음에 이르기까지 곳곳한 삶 감당한 지성인
- 354/ 동학군의 강경파 김개남(1)— '비단할아씨 거적자손'이라 개남장으로 회자돼
- 358/ 동학군의 강경파 김개남(2)— 수천군사 어디두고 쫓겨우리가 웬말이나
- 362/ 전라도 길목지킨 황진장군(1)— 호남이 없었으면 조선도 없었다
- 366/ 전라도 길목지킨 황진장군(2)— 우리골 황진은 권율의 명성에 가리고
- 370/ 노량해전 숨은 명장 이영남— '대쪽' 같은 기질로 나라지켜
- 374/ 운암대첩 의병장 양대박— 귀신이 되어서라도 적을 무찌르고 말리라
- 378/ 왕조실록 지킨 손홍록·안익(1)— 우리네 올곧은 선비정신 지녀
- 382/ 왕조실록 지킨 손홍록·안익(2)— 적 10만 물리친 것에 버금가는 큰 공 세워
- 386/ 민족의 처녀 주논개— 입술엔 꽃잎물고 가슴엔 칼을 지녔던 전라도 여인네
- 392/ 삼충절 오응정·오육·오동량— 죽음으로써 신(臣)의 도리를 다할뿐
- 396/ 장수 향교지기 정경손— 정신적 모태인 향교 지켜낸 충절
- 400/ 열림굿— 가볼만한 독립기념관
- 404/ 호남 으뜸 의병장 임병찬— "왜놈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 408/ 호남창의 동맹장 이석용— "하늘이 나라를 버리니 의병도 버려졌다"
- 412/ 남원 의병대장 양한규— 1천 민병 거느리고 나라 지키며 혼신 다하던 이 땅의 거인
- 415/ 대동창의단 전해산— 내 눈을 동해에 걸어 일본 망하는걸 보게하라
- 421/ 의병장 오하 이규홍— 칼을 던지고 공산에 앉았으니 흐르는 눈물 전의(戰衣)적시네
- 425/ 무주출신 의병 강무경— 천추에 핏자욱 남은 천강석 되리라
- 429/ 호남벌에 일렁이는 3월 함성— 딸 좋은건 기생으로 땅 좋은건 신작로로
- 433/ 민족대표 33인중 1인 박준승— 하늘을 우러러 민족의 넋으로 남아
- 437/ 남원 만세 주도 이석기— "우리 함께 만세 부르자 독립만세를 불러야 한다"
- 441/ 흑색공포단 백정기— 해방조국 땅에 묻고 무궁화꽃 한송이 놓아달라
- 445/ 임시정부 전북대표 김인전— 우리골에 애정 남다른 전북을 대표하는 임정요원
- 449/ 마지막회 전라도 사람들— 소외 역사 극복하고 새 땅에 우뚝한 고을

- 456/ 태줄을 찾아서— 토박이 삶 통해 전라도 모습 담을 터
459/ 방장산과 갈재— 고을 으뜸산은 백성들 믿음의 터전
464/ 순창군 쌍치면— 자연적 요새로 빨치산 해방구 돼
469/ 김제 모악산 첫번째, 넉넉한 품속으로— 풍요속 소외된 민중의 발
473/ 김제 모악산 두번째, 미륵의 세상으로— 미륵사상은 우리의 뿌리
477/ 전주 만덕산— 탈속되지 않은 무당들의 산
481/ 진안 마이산— 노령과 소백의 경계 마루
485/ 진안 운장산— 노령산맥의 최고봉
489/ 운장산, 산자락 삶의 뒤편길— 전북의 지붕 노령의 전망대
493/ 소백산맥을 향해— 백제와 신라의 줄기 교합한 무주
496/ 석기봉~삼도봉— 3도 접경, 지역화합의 장 마련
500/ 삼봉산— 자연이 잉태한 귀중한 생명
504/ 남원 지리산— 백두대간의 든든한 밑뿌리

정씨(鄭氏)가 흥한다는 비결 요언을 퍼뜨리며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결국 이 사실이 사전에 탄로되어 진안 죽도로 피신해 자결하였다. 이 사건은 1589년 기축옥사(己丑獄事)의 큰 원인이 되었다. 전라도는 그 뒤 반역향(叛逆鄉)이라는 죄명을 받게 되어 우리네 등용길은 더욱 막히게 되었다. 그러나 정여립은 다만 당쟁의 억울한 희생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음모가 전주가 아닌 황해도에서 먼저 알려졌던 점, 조선시대 봉당의 람들은 그의 음모가 전주가 아닌 황해도에서 먼저 알려졌던 점, 조선후기 봉당의 람들은 그의 음모가 전주가 아닌 황해도에서 먼저 알려졌던 점 등을 들며, 이제 그 권력투쟁이 빚어낸 한 가닥의 비극의 막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을 들며,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새로운 역사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들 있다. 이러한 사건 등은 전주가 역사의 주역이 되려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제 이곳엔 경기전·조경단·객사 등만이 남아 있어 풍패지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정조 44년(1768년)에 세워진 전주읍성은 '동문사거리' '서문교회' '북문탕' 등으로 이름만 의 흔적이 있을 뿐, 남아있는 것은 동학혁명 당시 동학군과 관군의 치열한 격전장이었던 풍남문 하나다.

'비사벌(比斯伐)'. 전주의 옛 이름이 비사벌이었다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이름이 잘못 붙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원래 경상도 창녕의 옛이름이었는데,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잘못 기록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학교 축제, 교지, 일반 택시회사, 다방, 호텔이름 등 이 고장의 많은 것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맛’ 과 ‘멋’ 의 고장으로

전주천과 삼천의 맑은 물은 그리 풍부하진 않지만 이 곳을 ‘맛과 멋’의 고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정치적으로 천시되어 온 경향이 이 방면에 몰두하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벽청연(寒碧淸煙·한벽루에서 굽어 보는 물안개와 무지개) 동포귀범(東浦歸帆·붉은 노을을 등지고 동포로 돌아오는 돛단배) 등 전주 팔경(八景) 뿐만 아니라, 파라시·청포묵·미나리·모래무지 등 팔미(八味)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태극선과 함죽선의 빼어난 맛도 전주천의 맑은 물로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맛과 멋의 전통은 2백여년전 대사습(大私習 : 크게 수련하는 도장) 놀이로 또 한번 응결되었다. ‘이그러짐’을 보면 흥분하기 쉬우나, 뚜렷하게 갖추어졌을 때는 평화롭고 다소곳할 수 있는 우리네. ‘기와집이 즐비하여 옛 도읍의 풍도가 있고, 사람들이 수레를 끌며 의관을 정제하고 다녀가히 본받을 만하다’고 한 고려 때 이규보의 말처럼 문화와 예술의 도시 전주. 그러나 그 속에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쪽같은 양반의 죽대’가 함께 숨쉬고 있다.